

A large background photograph of a cherry blossom tree in full bloom, with its pink flowers covering the upper half of the page. In the lower-left foreground, there's a portion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with a tiled roof and a wooden frame.

통권 제 198호

강남. 라 00943

2564  
2020

04

불교 이야기  
선종의 종류와  
단계

절방에 담긴 이야기  
죽음이 없는  
집의 써앗



마음의 등불  
뭐 먹고 살지?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총지종

## 종조법설집

제3장 참언편 p.185

## 가까운 내마음에 극락을 찾자

물건을 먼 곳에 두고 찾으려면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부처가 먼 곳에 있다고 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성불하기 어렵지마는 자성불<sup>自性佛이</sup>

곧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성불<sup>佛의</sup>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진리가 먼 데 있다고 생각한즉,

깨치기가 어렵지마는 만약 생활 중에 있다고 한다면,

곧 능히 체득하여 깨칠 것이다.

극락<sup>極樂</sup>이 서방<sup>西方</sup> 삼만여 국토의 밖에 있다고 여긴다면,

죽은 후에나 왕생활 곳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모름지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극락이 있음을 알지니라.

현세<sup>現世</sup>가 극락인즉 이것이 곧 가엾는 고해에서 머리를 돌려

저 언덕을 바라보라고 한 비유인 것이다.



#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_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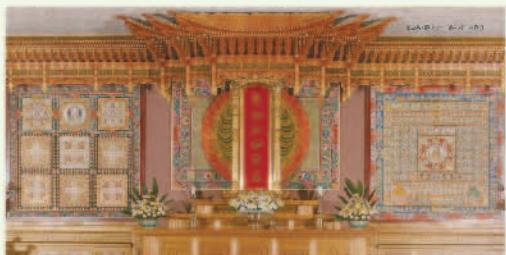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 불교총지종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염원합니다.



## 계율이야기\_10

말 말 말

\_ 법경 정사



## 자혜의 뜨락\_36

이솝 우화 속

배려의 미학

\_ 방귀희



## 디딤돌\_50

내 마음의 휴양지

동백의 섬 지심도

\_ 자성 전수

## 04 불교이야기

## 08 마중물

## 10 계율이야기

## 16 살다보면

## 22 향유

## 26 산책

## 28 아름다운 세상

## 32 마음의 동물

## 36 자혜의 뜨락

## 42 십선성취

## 46 씨앗 한 알

## 50 디딤돌

## 54 새 이야기

## 58 백유경

## 60 차향기

## 64 결망에 담긴 이야기

## 66 독자기고

## 68 동행

## 72 뜻 바루기

## 74 되짚어 보기

##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선정의 종류와 단계 \_ 화령 정사

위기에서 마음가짐 \_ 용수 스님

말 말 말 \_ 법경 정사

그래도 봄! \_ 아육경

심각해지지 말고 유머를... \_ 서령 정사

꽃 바람 \_ 김대곤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3 \_ 묘원화 전수

뭐 먹고살지? \_ 이덕무

이솝 우화 속 배려의 미학 \_ 방귀희

가마우지 낚시 \_ 남해 정사

삶의 의문에 대한 해답 \_ 법상 스님

내 마음의 휴양지 동백의 섬 지심도 \_ 자성 전수

때까지 \_ 정육식

상인들의 어리석음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2부 \_ 김정애

죽음이 없는 집의 씨앗 \_ 법일 정사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보고 \_ 여순애

붓다의 무릎에 앉아 \_ 이선희

어밀<sup>耳密</sup> \_ 김재동허공<sup>虛空</sup>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 바보와 현자의 차이

바보는 외모를 추구하고 현자는 건강을 추구한다.

바보는 남의 말을 따르고 현자는 스스로 생각한다.

바보는 다 아는 줄 알고 현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바보는 모르면서 아는 척 하고 현자는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

바보는 지적을 못 받아들이고 현자는 잘 받아들인다.

바보는 누구한테도 배울 수 없고 현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

바보는 남을 탓하고 현자는 자신이 책임진다.

바보는 결모습에 중요성을 두고 현자는 핵심에 중요성을 둔다.

바보는 바깥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현자는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

바보는 자기자랑과 남을 욕하고 현자는 겸손하고 남을 인정한다.

바보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현자는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바보는 물질을 추구하고 현자는 마음공부를 추구한다.

바보는 노후를 준비하고 현자는 죽음을 준비한다.

바보는 꼭 알아야 하고 현자는 몰라도 된다.

바보는 작은 즐거움을 위해 큰 행복을 포기하고

현자는 작은 즐거움을 포기해서 큰 행복을 안다.

바보는 말부터 하고 현자는 생각부터 한다.

바보는 지금의 이익만 생각하고 현자는 장기적인 혜택을 생각한다.

바보는 자기 탓을 남에게 돌리고 현자는 남의 탓을 자기로 돌린다.

바보는 자기만 쟁기고 현자는 타인을 쟁긴다.

바보는 남의 허물을 지적하고 현자는 남의 허물을 덮어준다.

바보는 자기 허물을 숨기고 현자는 자기 허물을 밝힌다.

바보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현자는 자기의견을 집착하지 않는다.

바보와 인연은 고통을 가져오고 현자와 인연은 복을 가져온다.

바보와 현자의 차이를 보아라!

바보 같이 살았지만 이제 현자의 삶을 살자.

바보짓은 저절로 하지만 현자의 삶은 수행이다.

바보가 현자가 되는 과정이 이생의 숙제이다.



## 선정의 종류와 단계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사선정은 지관균등을 이루어 자혜를 밝히는 가장 이상적인 선정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사선정에는 어떤 단계가 있으며, 그 경지는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선에 대해서 보면 경전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초선에서는 모든 욕구를 떠나고, 모든 불선법을 떠나며, 심이 있고 사가 있으며, 오개를 벗어나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 모든 욕구를 떠난다는 것은 감관의 욕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감관의 욕구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오욕을 말하는 것으로서, 감관의 대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바쁜 선정이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추구하는 것은 모두 이 감관의 욕구입니다. 눈으로는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귀로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며, 코로는 좋은 냄새를 맡고 싶어 하고, 혀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며, 몸으로는 편안함을 느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언제나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며 구하지 못해 안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이 생겨납니다. 초선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선법을 떠난다고 한 것은 여러 가지의 불선과 번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율을 준수하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이 있고 사가 있다고 했는데, 심과 사는 모두 사유 작용을 말합니다. 심은 뚜렷한 생각이고, 사는 미세한 생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초선의 상태에서는 마음이 가라앉고 통일되어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아직 생각하는 작용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인식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관의 욕구에 이끌리고 집착하는 것은 없지만, 오관의 작용은 계속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감관의 대상이 되는 색 성 향 미 촉 등의 색법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아직 남아 있는 단계가 색계 초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선의 단계에서는 심과 사라는 표면적인 사유 작용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개를 벗어나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정신통일을 방해하는 오개의 번뇌를 떠나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오개라는 것은 욕탐, 진에, 혼침수면<sup>惛沈睡眞</sup>, 도거악작<sup>都挾惡作</sup>, 의<sup>意</sup>의 다섯 가지를 말합니다.

욕탐이라는 것은 감관의 욕구에 대한 것으로서 눈 귀 코 혀 몸을 즐겁게 하는 것에 대해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입니다.

진에는 화를 내는 것으로서 이것은 색계에서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욕계에만 있는 마음작용입니다. 혼침수면은 마음이 침울하게 가라앉거나 잠드는 것으로서, 이런 상태에서는 바른 의식과 바른 자세가 갖추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신통일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도거악작이라는 것은 마음이 들떠서 산란하거나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마음이 제대로 집중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선악의 존재를 의심하고 인과를

의심하며 연기의 진리를 의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도 바른 정신집중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오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번뇌입니다.

올바른 정에 들기 위해서는 이 오개를 단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통제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러한 번뇌가 사라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이것을 단별해야 바른 선정에 들 수가 있습니다.

초선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오개가 단별되고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초선에서는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마음의 안정을 방해하는 번뇌가 진압되기 때문에 초선 가운데에서는 오개의 번뇌를 벗어난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것은 신체적인 편안함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초선에 들게 되면 심신 모두가 어떠한 근심걱정도 없이 편안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선에서는 감관에 대한 욕구는 없으나 거기에 대한 의식이 남아 있어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면서 마음의 집중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심<sup>心</sup>, 사<sup>事</sup>, 회<sup>慧</sup>, 낙<sup>樂</sup>, 심일경성<sup>心一境性</sup>의 오지<sup>五智</sup>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의 색계초선에 드는 것은 불교 이외의 다른 외도들에게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아직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위기에서 마음가짐

용수스님  
세천코리아 명상센터



이런 위기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속지 않도록 마음의 습관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상황을 과하게 그려서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내고 마치 희망이 없고 답이 없는 것처럼 비춰 줍니다.

마음의 습관을 습관으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무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영구성을 집착합니다. 상황이 영원할 것처럼 해답

이 없는 것처럼 그려 줍니다. 마음은 다양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일성을 집착합니다. 모든 것을 흑백으로 그리고 좋고 나쁘고 분별합니다. 어떤 것도 백프로 좋고 어떤 것도 백프로 나쁜 것이 없어요. 어려움에서 배울 것이 많아요. 위기에서 교훈을 놓치지 않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계기도 될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은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위기는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겁니다. 마음은 서로 연결이 되어있다는 연기(상호 의존)와 인과법칙을 놓치고 독립성을 집착합니다. 모든 탓을 하나에게 돌아서 남을 탓하고 자신의 책임은 외면합니다. 인간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위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시민으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반성할 시기입니다. 인간은 동물 중에 가장 나쁜 동물입니다. 동물과 환경의 고통을 무시하고 끝없는 욕심과 지각없는 소비로 건방지게 살아온 자신의 삶을 살필 때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자신을 위한 조언으로서 여러분들과 감히 글을 공유합니다. 기도합니다. 성찰합니다.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고통에 기여하지 않을 수 있기를**  
**모든 중생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중생의 행복에 기여 할 수 있기를!**



## 말 말 말

법경 정사  
정각사주교  
철학박사  
동국대 강사



청정한 계율\_59

## 오해하여 말을 잘못 전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 있다. 오해란 그릇되게 아는 것이다. 정확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오해로 빚어지는 결과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하기도 어렵다. 때에 따라서는 씨움을 넘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잘못으로 인하여 더 큰 잘못을 놓는 꼴이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잘못 전해 듣고 전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이 많고 악의적으로 전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 등 고악한 베릇은 항하사<sub>值荷者</sub>의 모래수 만큼 많다.

오해로써 상대를 미워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남을 죽기 살기로 훨씬 한다. 그래서 상대를 비방하고 중상모략까지 일삼는다. 잘못과 오해에서 비롯된 악업들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타인의 말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가르쳤다. 잘 전해 듣지 않고 함부로 비방하지 말라는 게가 그것이다. 그 계를 불심 체수사어계<sub>不審財受師戒</sub>라 한다. 이 계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참마라는 비구니의 제자 제사 난리 비구니가 바루와 침통을 가져오라는 스승의 말을 흄쳐 오라는**



말로 잘못 알아 듣고서는 오히려 이를 대중들에게 맘을 퍼뜨렸다.

소문이 일자 부처님께서 이를 자세히 알아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계를 재정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스승의 말을 자세히 듣지 않고 타인에게 스승의 말을 잘못 퍼뜨리면 바일제이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잘못 듣고서 잘못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구업이다.

가능하면 나쁜 말을 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하려거든 좋은 말만 전하도록 노력하자.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심성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말은 바뀌지 않는 법이다. 이것이 습이고, 습이 곧 업이다. 나쁜 습관이 바로 나쁜 업인 것이다.

### 사소한 일로 화를 내어 저주의 말을 하지 말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화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참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인욕이 모자라서 그렇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의 선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화가 나면 입으로는 악구, 몸으로는 살인이나 폭행의 업을 짓는다. 그러므로 진에심이 문제다. 성내는 마음은 수행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악의 화근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화를 내며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입이 더

러워지고 사나워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를 진심주저계<sup>眞心私體戒</sup>라 한다.『사분율』에서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6군 비구니가 사소한 일로 화를 내며 “만약 내가 그 일을 했다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했다면 삼악도에 떨어져 다시는 불법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하고 저주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재정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사소한 인연으로 문득 저주하여 ‘내가 만약 그 일을 했다면, 삼악도에 떨어질 것이요. 그러나 만약 네가 그렇게 했다면 삼악도에 떨어져 다시는 불법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저주하면 바일제이니라.”

『오분율』에서는 상대를 저주하는 그것만으로도 바일제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고, 『십송율』에서는 서로 싸울 때 저주하는 말이 바일제라 하고 있다.

우리는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는다. 또한 거친 말을 하거나 악담 일삼기를 생활로 하고 있다. 자신을 황폐화시키고 타인에겐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막말을 해서는 안된다. 특히 저주하는 말은 더욱 삼가야 한다. “나가 죽어라.” “지옥에 떨어져라” “얼어 죽어라” 등



등의 저주 섞인 말은 본인에게 먼저 화를 입힌다. 말은 사람의 인격과 교양을 가늠하는 척도다.

### 분에 못 이겨 가슴을 치며 울지 말라

화가 나서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에 못 이겨 자신의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사람들도 간혹 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다. 출가자답지 않은 처신이기 때문이다. 위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계를 **추홍제곡계** 推胸制慾戒라 한다. 또는 **진타기신체읍계** 撲打己身嗜粒戒라고도 한다.

**추홍**은 가슴을 친다는 뜻이고, **제곡**은 울부짖는 것을 말한다. **진타기신**은 화를 내며 자신의 몸을 친다는 말이며, **읍계**는 울부짖는다는 뜻이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다는 측면에서 같은 말이다. **추홍제곡계** 推胸制慾戒의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코살비국에 계실 때 가라 비구니가 다른 사람과 말싸움 끝에 분함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풍곡을 하였다. 모든 비구니들이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 고하니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비구니가 싸움 끝에 분함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면 바일제이니라.”

분함을 참지 못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가슴을 치는 행위는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이를 삼가야 한다. 그래서 『근본설일체유부비구니비나야』에서는 ‘만약 비구니가 화를 내며 자신의 가슴을 쳐서 고통이 생기게 할 때는 바일제가 된다’고 하고 있다.

출가 수행자가 분노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것은 상상할 수 없고, 그 모습은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역설적으로 말하면, 분노하는 것, 가슴을 치는 것, 울부짖는 것은 수행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



# 그래도 봄!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봄이다. 느낌으로 먼저 와서 여린 빛깔로, 아련한 향기로 피어나는 봄. 사방이 온통 꽃 천지다. 부신 햇살 아래 길을 나선다. 온몸에 와 감기는 바람이 온통 봄이다. 무장 해제다. 이런 날은 봄을 따라나설 수밖에. 봄을 찾아가는 길… 느릿느릿 쉬엄쉬엄,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꽃향기도 맡으며.

오죽헌<sup>烏竹軒</sup> 초입, 양쪽으로 줄지어 늘어선 은행나무가 연둣빛 여린 움을 틔우는 길을 따라 들어선 오죽헌 마당. '이득을 보았으면 옳은 것 인가를 생각하라. 견득사의<sup>見得思義</sup>'라는 울곡 선생 동상 옆 표석에 새겨진 가르침이 마음의 빗장을 연다.

자경문<sup>自警門</sup>을 지나면서 울곡 선생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 지었다는 자경문<sup>自警文</sup>을 다시 생각한다. 가까이 있어서 친근하지만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곳이 오죽헌이고, 문성사<sup>文成祠</sup>다. 울곡 선생이 나고 자란 공간 오죽헌은 작고 아담한 전통한옥이다. 울곡 선생의 영정을 모신 문성사는 대학자의 궤적을 찾는 많은 탐방객들이 '도덕과 학문이 막힘없이 통했으며 백성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정사의 근본으로 삼았던' 선생의 위업을 추앙하는 곳이다.

딱 이 즈음이면 오죽헌을 그윽하게 물들이는 향기가 있다. 천연기념물 484호, 울곡매<sup>栗谷梅</sup>라는 이름의 흥매화다. 1400년대에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령 600여 년의 이 나무는 유독 매화를 좋아했던 사임당이

매우 아겼던 것으로 전해진다. 몇 해 전 기록적인 폭설에 가지가 부러지는 수난을 겪으면서도 해마다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는 홍매화가 혹시나 사임당이 고매도<sup>古梅道</sup>, 묵매도<sup>墨梅道</sup>에 피워냈던 매화의 환생은 아닐는지.

오죽헌의 앞마당을 지키는 배롱나무도 올곡매와 나란히 나이를 먹었다. 뒤틀의 올곡매가 꽃을 떨어뜨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쯤, 강릉시의 시화이기도 한 이 나무는 사임당의 자취인 듯, 서서히 붉은 꽃을 피워 올릴 것이다.

문성사 오른쪽에 선 두 그루의 올곡송<sup>栗谷松</sup>에도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올곡 선생이 선비의 지조를 상징하는 군자의 식물이라며 “한참 바라보노라면 청아한 운치를 느낄 것이다. 소나무가 사람을 즐겁게 하는데 어찌 사람이 즐겨 할 줄 몰라서야 되겠는가”라고 예찬을 했다는 노송이 묵묵히 세월을 지키고 있다.

오죽헌에서 길 하나를 건너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진 공방 길에는 창작인들이 모여 작업을 펼치는 공간답게 아기자기한 작품이 즐비하다. 잇닿은 곳이 강릉 창작예술인촌이다. 이곳에는 바이올린 제작을 비롯해 목공예·천연 염색·비즈공예· 닥종이 인형 등 20여 명의 공예작가들이 입촌해 있어 볼거리도 많고 체험거리도 다양하다.

이곳 2층에 자리 잡은 동양자수 박물관은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통 자수를 중심으로 동양자수의 미적 세계를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이다. 조각보, 서양자수와 독창적인 규방예술로 극찬 받고 있는 강릉 자수도 전시되어 있으며, 귀가 올라온 강릉 고유의 강릉 주머니도 만들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이라면 코로나19로 나라 안팎이 온통 어지러운 시국에 웬 꽃노래냐고 지청구를 하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의 얘기는 몇 년 전에 썼던 글의 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니 널리 이해해 주시길. 새 움이 트고, 매화며 영춘화며 진달래, 개나리가 피는 봄이 왔지만 계절의 아름다움마저 퇴색하게 하는 이 우울한 사태를 어찌할 것인가.

분명,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라는 시절이 있었거늘.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던 헛살, 연둣빛으로 피어나던 들판, 바람결에 실려 오던 연분홍색, 노란색 꽃향기, 재잘재잘 깔깔깔 소풍 길에 나섰던 병아리 같은 아이들… 그리운 마음에 다시 강릉의 봄을 더듬어 본다.

강릉 하면 바다가 으뜸이다. 더군다나 봄빛을 머금어 투명한 연둣빛으로 물드는 강릉 바다를 어찌 그냥 지나칠 것인가. 강릉 시내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래시계>로 유명한 정동진과 수로부인의 전설을 간직한 헌화로의 비경을 잇는 힐링 트레킹 탐방로 정동 심곡 바다부

채길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꼭 해안도로를 타고 가야 제맛이다.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은 2,300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동해가 열리면서 파도에 깎여 편평해진 해안이 지반과 함께 솟아올라 형성된 국내 유일의 해안단구에 놓인 약 2.86km의 맥 길이다. 탁 트인 동해의 풍광과 웅장한 기암괴석이 빛어내는 아름다움이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강릉의 산간 오지로 품히는 왕산면에는 안반데기와 모정탑길이 있다. 쏟아지는 별, 푸르게 펼쳐진 배추밭, 새벽안개를 뚫고 붉게 떠오르는 태양… 산이 배추밭이고 배추밭이 산이 되는 곳, 너무 높아 구름도 쉬어 간다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안반데기. 해발 1,100m에 위치한 이곳은 멱메로 멱을 치는 안반처럼 우뚝하면서도 널찍한 지형이라 안반데기라고 불린다.

경사가 심해 오로지 사람의 손으로 화전을 일구고 소를 몰아 밭을 갈았다는 안반데기는 우리나라 고랭지 배추 경작지 중 가장 넓은 곳이다. 긴 겨울의 끝에 오는 안반데기의 봄은 짧다.

6월에 배추 모종을 심어 8월이면 출하를 하는데 45도 정도의 가파른 경사를 따라 끝없이 펼쳐지는 배추밭의 초록 물결이 장관이다. 산능선을 따라 늘어서서 그리움인 양 날개를 돌리고 있는 풍력발전기도 경이로운 풍경이 되어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모정탑길이 있다. 쪽쪽 뻗은 금강소나무 숲을 왼쪽에 두고, 송천을 따라 걷노라면 모정탑길이 시작되는 계곡에 다다른다. 모정탑길은 거듭해서 자식들의 비운을 겪던 차옥순 할머니가 26년간 산속에 홀로 기거하면서 가족들의 평안을 빌며 쌓아 올린 크고 작은 돌탑 3,000여 개로 된 조붓한 길이다.

돌탑을 쌓고, 서툰 글씨로 자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쓰면서 올린 어머니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 할머니가 기거했다는 읊막 앞에 서면 누구나 다 가슴 뭉클한 모정을 느끼게 된다.

온몸으로 겨울을 견디어낸 나무들이 늦된 봄을 틔워 올리는 곳, 모정탑길을 찾아 지금 우리 모두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 19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해 보면 어떨까. 춘래춘 불사춘 春來春 不似春, 봄 같지 않은 봄, 우리의 봄은 아직 멀지만 ‘모든 중생이여, 항상 행복하여라. 태평하고 안락하여라(ս타니파타)’ 이 말씀에 기대어 더 간절하게 마음의 봄을 기다려 본다. 1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울하고 두렵고 답답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역경이 생겼을 때 더욱 더 잘 뭉치고 단합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번 상황도 잘 이겨내리라 봅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면서 가벼운 미소와 유머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연습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화를 내면 내가 낸 화를 통해 또 다른 화가 올 것입니다. 지금, 책도 읽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요.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 후원금, 도시락, 사랑의 택배 등이 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부처님 지혜의 실천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시라고 유머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 최근 조사한 바로는 충청도 말이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 진실은 밝혀진다

한나라 문 황제 때에 '직불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량이 넓어 문 황제의 큰 신임을 받고 있어  
관직이 태종대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궁중 신하들 가운데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한 관리가 문 황제와의 조회 시간에  
대놓고 그를 모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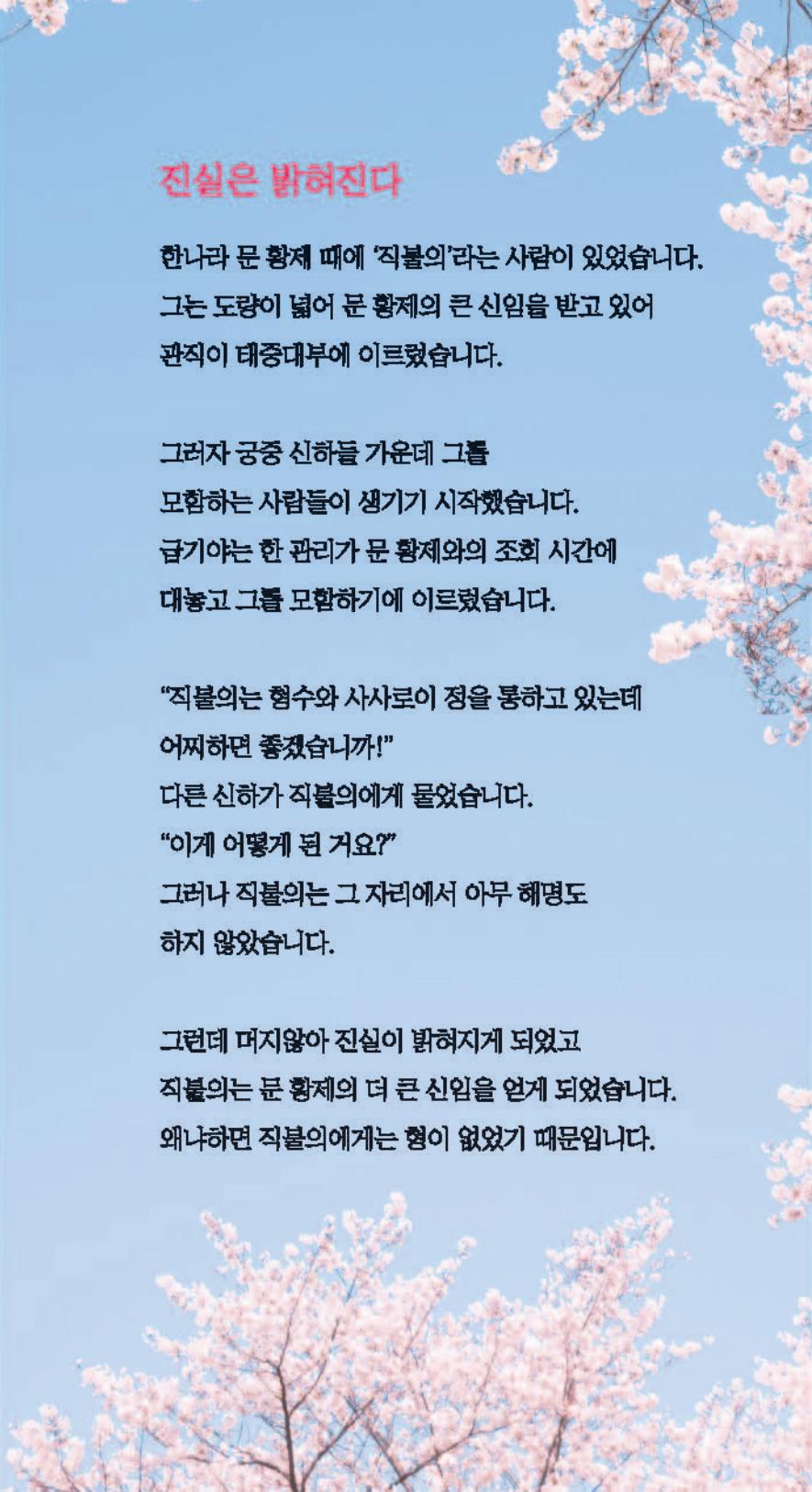
"직불의는 형수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고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다른 신하가 직불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요?"

그러나 직불의는 그 자리에서 아무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직불의는 문 황제의 더 큰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직불의에게는 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 사례 5

표준어: 랜찮습니다.  
경상도: 죽었다 아임니까.  
전라도: 죽어버렸어라.  
충청도: 갔슈.

### ▣ 사례 2

표준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경상도: 내 좀 보이소  
전라도: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 좀 봐유.

### ▣ 사례 3

표준어: 정말 시원합니다.  
경상도: 억수로 시원합니더.  
전라도: 겁나게 시원해버려라.  
충청도: 엄청 선해유.

### ▣ 사례 4

표준어: 어서 오십시오.  
경상도: 퍼뜩 오이소  
전라도: 허벌나게 와 버리랑께.  
충청도: 어여 와유.



산책  
꽃 바람

김대곤  
시인

바람이 불어  
꽃은 춤을 춘다.

꽃은 외로워진 다음에야  
함께의 의미를 안다.

바람이 멈추면  
꽃은 춤을 출 수 없다.

꽃, 바람  
참으로 어울리는 것들

성가시다 생각한 바람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래서 꽃이 없는 길가엔  
바람은 운다.

꽃은 그 흔들림이  
사랑인 줄 안다.

사랑이 없으면  
춤출 수 없다는 것을



## 자비선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3

묘원화 전수  
벽룡사



- 발표** 자운 스님 (보리마을 자비선 명상원 선원장, 한국 차명상 협회 이사장)
- 토론** 월호 스님 (행불선원 선원장, BBC 불교방송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진행자)

자비선<sup>慈悲禪</sup> 명상의 두 축을 담당하는 자비수관<sup>慈悲手觀</sup>과 자비공관<sup>慈悲空觀</sup>을 보조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는 다선일미 차명상(자비다선<sup>慈悲茶禪</sup>)과 자비경선<sup>慈悲經禪</sup>(걷기명상)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명상에는 정념다선<sup>正念茶禪</sup>, 삼매다선<sup>三昧茶禪</sup>, 지혜다선<sup>智慧茶禪</sup>, 자비다선<sup>慈悲茶禪</sup>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두 가지만 소개하겠다.

자비다선은 일미의 지혜를 의지하여 펼쳐지는 차명상이므로 다선일미 차명상과 같다. 여기에는 ‘다선실 꾸미기 명상, 뜻 새기기 명상’이 기본으로 있다. 자비다선의 내용은 명상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도의 다섯 단계를 인식하게 한다. 이 차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의 심리를 거울 같이 비춰볼 수 있다. 즉, 명상의 장애가 무엇인지 마음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게 한다. 그러므로 자비수관과 자비공관을 돋게 된다.



정념다선은 했다선이다. 차명상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알아차림하여 의식을 깨우고, '감로차 마시기 명상'을 통해 내면을 보면서 심안<sup>心眼</sup>을 쉽게 열며, 오색다선, 색향미다선 등을 통해 자비와 일미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의 길을 분명하게 한다.

자비경선은 겉기선<sup>身見</sup> 명상인 행선<sup>行見</sup>이 있고 좌선<sup>坐見</sup>이 있다. 이 두 수행 역시 상호보완적이다. 일상생활에서 걸으면서 명상한 체험들이 좌선 수행으로 이어지고 24시간 늘 수행하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 경선은 걸으면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듯이 몸과 마음, 사물을 보는 것이다.

거울은 사물을 비출 때 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춘다. 명상에서 반응하는 몸과 마음은 까르마 현상이므로 이를 가감없이 봐야한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자비수관과 자비공관에도 그 수행의 경계가 이어진다. 걸으면서 겪는 여러 가지 경계에 대하여 늘 깨어 있는 상태는 눈을 감으나 뜰 때에도 바뀌지 않는 의식의 깨어있음을 체득한다.

다선실 꾸미기 명상, 뜻 새기기 명상, 감로차 마시기 명상, 겉기 명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명상이란 어떤 행동이라도 그 안에 알아차림이라는 깨어있는 의식이 담기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화를 나누면서도 말할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말하기 명상,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경청 명상, 밥을 먹을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먹기 명상, 숨 쉴 때 알아차림이 있다면 호흡 명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 있을 때 대상을 통해 무상<sup>無常</sup>, 고<sup>苦</sup>, 무아(아공<sup>無我</sup>)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성을 이해하고, 그에 머물지 않고 보리심을 일으키고 깨쳐 법공<sup>法空</sup>을 이해하여 무분별지<sup>無分別智</sup>를 얻어 열반을 성취하게 된다. 부처님은 「대반열반경」에서 알아차림 수행(염처<sup>應處</sup>수행)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



## 뭐 먹고살지?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조선후기 유학자, 실학자



하늘이 만물을 낳으면서 살게 하려는  
마음이 아닌 것이 없다.

天之生物  
無非欲生之心也

천지생물 무비욕생지심야

『청장관전서(淸莊館全書)』48권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



“뭐 먹고살지?”

힘겨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 앞에 누구든 이런 고민을 해 보았을 것이다. 모든 것을 훌훌 던지고 속세를 떠나면 모를까, 속세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려면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실학자로 유명한 조선 후기 문인 이덕무 역시 이러한 고민에 당면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에게 답을 준 존재는 다름 아닌 거미였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러하다.

저 거미는 배가 뚱뚱하고 웁츠린 형태이니 벌레 중에서 민첩하지 못한 놈이다. 살 방도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므로 실을

주어서 그물을 쳐서 먹고 살게 하였다. 나는 놀고먹는 사람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사지와 얼굴을 갖춘 사람이 그래도 거미가 실을 치는 것 보다야 낫지 않겠는가.

[彼蜘蛛腹便便貌瞿然之不捷者耳不使之方便則不可以食故與之絲食於網余惑於人之游食者耳四肢七竅不猶愈於蛛之絲乎]

미물인 거미조차 나름의 생존방법을 타고 났듯 누구든 필시 먹고 살 방도가 있으니 마냥 놀고먹지는 말자는 말이다. 다소 평범한 격언처럼 보이지만, 이는 이덕무의 절박한 현실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글은 이덕무가 20대 중반에 완성한 「이목구심서」에 보인다. 그의 젊은 시절은 가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다. 누추한 집을 파고드는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책으로 바람을 막고 몸을 덮어서 추위를 면 할 정도였다. 또 당시는 서자라는 신분 제약 때문에 관로도 막힌 처지였고, 자신이 책임질 아들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가난한 장기 취준생에다 먹여 살릴 부양가족도 딸린 셈이다. 그러니 '뭐 먹고살지?'는 그에게 더없이 절박한 고민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덕무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내었다. 그 길이란 바로 독서였다. 독서야말로 자신이 좋아하고, 또 잘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풍부한 학식을 인정받아 검서관 벼슬을 하게 되어 녹봉도 받았고, 훗날

수많은 저술을 통해 걸출한 학자라는 명성도 남겼으니, 생명을 위한 하늘의 원대한 계획을 증명해 보였다고 하겠다.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 찾았다 하더라도 자신을 가지고 혼들리지 않기란 더욱 어렵다. 어떤 땐 힘겨운 현실 앞에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 그때마다 '도대체 뭐 먹고살지?'라는 고민은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도 하늘이 먹고 살 방법 하나는 분명 주었을테니 절망하지는 말아야겠다. 그렇다고 마냥 놀고먹어서는 안 되는 법,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이다. ━



해설 | 김준섭 한국고전번역원 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 이솝 우화 속 배려의 미학

##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승실대학교 겸임교수  
<E美지> 빌행인  
컬럼집 <배제와 포용> 저자



이솝우화는 생애주기별로 꺼내어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린시절에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였고, 청소년기에는 인간이 갖추어야 할 도덕적 교훈이었다. 그런데 장년기에는 사회적 배경으로 해석하게 되더니 노년기에 가까워지자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만든다. 이렇듯 이솝우화에는 인간의 삶을 성숙시키는 코드가 있다.

나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이솝우화는 '토끼와 거북이', '여우와 두루미'이다.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 사회가 약자를 위해 어떤 배려가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고, 여우와 두루미는 개개인 사이에서 어떤 배려를 해주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 … 거북이의 값진 승리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다. 어느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였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진 것을 보고 중간에 잠깐 쉬다가 잠이 들어버린다. 잠에서 깬 토끼는 전속력으로 달리지만 결과는 거북이의 승리였다.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어렸을 때는 느리다고 거북이를 놀려대는 토끼가 너무 미웠다. 내가 중증의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또래 아이들이 쉽게 하는 일들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매우 느렸기에 거북이에 나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었다.

토끼는 신체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갖고 태어났다. 부모 데에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요즘 세태에서 금수저라고 하는데 토끼도 금수저이다.

그에 반해 거북이는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장애인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흙수저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흙수저와 금수저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이기에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는 빌상은 예술 영역이다. 그런데 토끼가 거북이에게 패배한 것은 자만심 때문이다. 상대를 얕잡아보는 교만이 이이 없는 실패를 만들어냈다.

이렇듯 노력하면 승리하는 결과는 문화 영역이다. 문화는 그 사회가 수용하는 관습이어서 노력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문화가 형성되면 공정한 사회가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저히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복지 영역이 필요하다. 사회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다. 복지는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배려이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토끼와 거북이는 나와 타자의 경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경쟁인지도 모른다. 근면한 마음이 강할 때는 열심히 노력하게 되지만, 어느 순간 쉬고 싶고, 일하기 싫어서 나태함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경기는 타자와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하는 것이다. 긍정이 이기면 부지런한 성실함이 빛나는 것이고, 부정이 이기면 게을러져서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

### … 두루미의 통쾌한 반격

심술꾸러기 여우가 두루미에게 '한 턱 널테니까 우리 집에 놀러와.'라고 하면서 두루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여우는 두루미에게 일부러 납작한 접시에 담긴 수프를 내밀었다. 두루미는 부리가 길기 때문에 수프를 먹을 수 없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여우는 맛있게 수프를 먹었다.

얼마 후 두루미는 여우에게 '예전에 음식 대접을 잘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한 턱 널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며 여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두루미는 여우에게 일부러 고기를 주둥이가 긴 병에 담아서 내밀었다. 여우는 부리가 없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다. 두루미는 여우가 그랬던 것처럼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

여우와 두루미는 누가 더 강점이 있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것 이야기로 다양성의 문제이다. 여우와 두루미는 먹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그저 다를 뿐이다.

여우가 순수한 마음으로 두루미를 초대했다면 손님을 위해 두루미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두루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펴서 준비를 했겠지만 여우는 처음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다.

두루미를 약을려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두루미도 여우의 속마음을 잘 알기에 똑같은 방식으로 응징을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갑과 을로 나뉘어서 갑은 갑질을 하고 을은 을질을 한다고 서로를 공격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그 역할이 다를 뿐 갑질과 을질이라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이다. 장애 때문에 인간의 본질이 달라 지진 않는다. 장애를 보완해주는 욕구가 필요한 것 뿐이다. 다르다는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서로를 배려해주면 아주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 …부처님의 배려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 아나울은 불면<sup>不眠</sup>으로 정진을 하다가 설명을 한다. 부처님이 아나울에게 각별한 사랑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

는 일화가 있다. 아나울이 자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아나울은 앞을 볼 수 없게 된 후에도 설명 전에 하던 실력으로 바느질은 그런대로 할 수 있었지만 바늘귀를 끼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아신 부처님께서는 아나울을 위해 직접 바늘귀를 끼워 주셨다고 한다(중일아함경). 그리고 아나울은 앞을 못보는 것이 아니라 천안제일<sup>天眼第一</sup>이라며 아나울의 장애를 무능이 아니라 장점으로 만들어주셨다.

인간적으로 다가가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존귀한 존재라고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배려일 것이다. ☺



# 가마우지 낚시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3년 전 중국 계림에 갔을 때 처음으로 가마우지를 이용한 물고기 낚시를 보게 되었다. 지금은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예전부터 중국의 어부들이 생계를 위해 가마우지를 이용해 낚시를 해왔다.

가마우지 낚시는 가마우지의 목에 줄을 묶어서 강에 풀어 놓으면 이 새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다.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치며 물고기를 물고 나오는데 목에 줄이 묶여 있어서 물고기를 삼키지 못 한다. 목이 긴 이 새가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제 목구멍으로 삼키지 못

하고 그저 주인에게 물고기를 바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사진작가 줄리아 워머린이 촬영한 중국 계림 이강의 가마우지 낚시 모습으로 (중국 계림 이강에서) 대나무 뗏목에 앉아 있다 먹이를 잡기 위해 잔잔한 물속으로 뛰어드는 가마우지들을 찍었다.

이 아름다워 보이는 풍경 사진은 저녁 무렵 강가에서 가마우지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긴 박대로 강바닥을 밀며 배를 타고 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참 평화롭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속에는 여러 가닥의 고달픈 삶의 끈이 숨어 있다.

가마우지로 물고기를 잡는 낚시법은 자못 잔혹한 면이 있다. 어부가 가마우지의 목에 거의 꽉 끼는 끈을 묶은 채 강에 풀어 주면 가마우지는 평소의 사냥 습성대로 물고기를 잡아 머리부터 통째로 삼킨다. 하지만 목에 끈이 묶여있기 때문에 삼킬 수가 없다.

그때 어부는 그 물고기를 가로채고, 다시 가마우지를 풀어주면 배가 고풀 가마우지는 다시 물고기 사냥을 한다. 물고기 잡이 도중이나 끝난 후 작게 자른 물고기로 가마우지를 달래 가면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도 가마우지 낚시와 연관이 있다. 1980년대

말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가는『한국의 붕괴』라는 책에서 가마우지 경제라는 말을 처음 언급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수출품의 원자재를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하는 한국의 수출구조상 문제점 즉, 우리나라가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완성품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게 돼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돌아가 수출로 얻은 실익을 일본에 빼앗기는 상황을 가마우지 낚시에 비유한 말이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몽골 초원의 매사냥과 함께 이 가마우지 낚시는 자못 인간의 영리함이 빛어내는 아픔이 있다. 그럼에서 뱃전에 조용히 앉아 있는 가마우지들도 조금씩 얻어먹는 먹이에 길들여진 사냥용인 것이다.

그렇다고 가마우지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저 어부의 삶이 그다지 편안하고 풍요롭게 보이지도 않는다. 저렇게까지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절박함에 묶여 있는 것이다. 가마우지가 목에 감고 있는 줄 만큼이나 잔혹한 끈이 저 어부의 목에도 감겨 있는 것이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누가 저 어부의 목에 어떤 끈을 매어

놓았을까? 우리의 목에는 누가 어떤 끈을 매어놓았을까? 나의 목에는 어떤 끈이 매여 있을까? 그 끈은 누가 매였을까? 아니면, 나 스스로 옮아매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끈, 어머니라는 이름의 끈, 가족이라는 이름의 끈, 그리고 이 사회, 이 세상이라는 이름의 끈에 매여 살고 있다. 나의 부모님도 다섯 명의 자식을 키우기 위해 다섯 개의 끈을 목에 매고 평생을 사셨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 자식들이 자신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 이 세상을 위해서. ■



## 삶의 의문에 대한 해답

법상 스님  
원광사 주지  
다음카페 '목탁소리' 지도법사



행복해지고 싶은가? 자유롭고 싶은가? 성격을 바꿔보고 싶은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깨달음을 얻고 싶은가? 그 무엇이라도  
좋다. 무언가를 얻고 싶거나 되고 싶다면 그 답이 여기에 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펼쳐져 있는 삶 그 자체가 이미, 그 모든 답을 주기 위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주어진 현실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답이며, 실상이며, 진실



이다. 그것이 이 세계를 법계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곳은 법의 세계,  
진리가 펼쳐진 세계다. 이미 당신 자체가, 당신의 삶 자체가, 있는 그  
대로의 진실 그 자체다.

다만 당신은 매 순간 펼쳐져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현실을 머릿  
속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좋아하면서 더 붙잡지 못해 안달하거나,  
싫어하면서 거부하고 도망치려 애쓰기 때문에 그 진리의 삶을 세속적  
인 고통의 삶으로 변질시켰을 뿐이다.

바로 그러한 당신의 망상과 생각만 없다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진실  
하다. 생각과 망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그저 그렇게 있는  
그저 '그러할 뿐'인 이 세상과 삶을 그저 그렇게 내버려둔다면 모든 것  
은 그 자체로 온전할 뿐이다.

당신의 아들이 A라는 대학을 갔다면 그것은 그저 '그러할 뿐'이지  
좋거나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대학을 간 것을 영광  
으로 알고 기뻐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그 정도의 대학 밖에 못 간 것  
에 대해 괴로워 할 것이다.

사람에 따라 이처럼 분별하고 살지만, 사실 근원에서 본다면 그것은  
기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그저 그럴 뿐인 것이다.

세상 모든 일이 이와 같다. 심지어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을지라도 그것은 그저 그럴 뿐이지 우리 생각처럼 좋거나 나쁜 일은 아니다. 다리가 부러진 덕분에 전쟁 때 다른 사람은 모두 징집되어 끌려갔지만 아들은 살 수 있어서 기뻐했다는 새옹지마의 비유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사실 그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그저 그럴 뿐인 중립적인 경계일 뿐이다.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가 참된 실상이며, 우리를 돋기 위해, 깨닫게 해 주기 위해 나타난 원만실상이라는 것이다. 나빠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근원에서는 언제나 우리를 돋기 위한 일들만 일어난다는 뜻이다.

무언가가 되고 싶거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무언가 되어야 하거나, 얻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그 마음만 없다면 당신은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이 되어 있다. 우리가 이생에서 해야 할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여기에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무슨 노력이 필요하며, 무슨 방법이 필요한가? 그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나 애씀도 없이 그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그저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이면 될 뿐이다. 그저 망상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고,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판단만 그치면 된다.

이 공부는 이처럼 너무나도 쉽다.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낄 뿐이다. 그동안 분별 망상으로 수도 없이 허망한 관념과 세계와 욕망과 집착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다보니, 그것을 내려놓기 어려울 뿐이다.

그러나 이 공부는 다시 내려놓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모든 인위적인 노력을 그치면 될 뿐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그 모든 허튼 망상들을, 그저 하지 않으면 된다.

이토록 깨달음은 쉽다. 그래서 옛 선사는 깨닫는 것은 세수하다가 코만지는 것처럼 쉽다고 했다.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공부의 특성이다. 지금까지 해 오던 온갖 망상을 쌓아 올리던 쓸데 없는 노력을 그저 단순하게 그치기만 하면 된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목탁소리'

## 내 마음의 휴양지 동백의 섬 지심도

자성 전수  
법성사



꽃피는 4월 이달에는 경남 거제에 위치한 지심도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거제 장승포항 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들어가면 지심도라는 작고 예쁜 섬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현종 때 15세대가 이주하여 살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군의 요새로도 사용하였던 곳입니다. 전국에서 걷고 싶은 길에도 선정될 만큼 유인도 중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섬으로 동백꽃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멀리서 보면 군함의 형태를 닮았고,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의 모양이 마음 심«을 닮아 이름 붙여진 지심도...

3월~4월이 동백꽃의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지심도의 동백은 토종 동백이라 꽃봉오리가 작고 꽃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일출과 일몰을 구경하기에도 좋은 장소이고 여름에는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청정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배를 내리면 제일 먼저 바위 위에 앉아 있는 인어공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바위를 범바위라 부릅니다.



범바위에도 슬픈 사연이 있는데... 옛날 마을 뒷산에 호랑이 한 마리가 인어를 보자 첫눈에 반해 사랑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어는 자신의 책무를(수달에게 감성돔을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라는 명령) 호랑이에게 대신 맡기고 용왕님의 허락을 받아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난 뒤 영영 돌아오지 않자 인어를 기다리다 호랑이가 죽게 되어 '범바위'라 이름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지심도 반환 기념비입니다. 일본군의 요새로 활용되었다가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지심도는 국방 군사시설로 사용되면서 많은 불편을 겪자 2005년부터 지심도 반환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17년 드디어 거제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고 합니다.

섬 곳곳에 일본의 잔재처럼 남아있는 장소들이 눈에 띄는데 작은 섬에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남아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웬지 씁쓸함을 느껴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만한 곳이지만 가슴 아픈 사연들이 담겨있는 섬...

지심도에는 멋진 나무와 다양한 꽃들이 있는데 당연 으뜸은 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동백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동백꽃이 울창한 길을 따라 걷다보면 동박새 터널이 나옵니다. 이곳은 팔색조, 흑비둘기 등 다양한 새들의 서식지로 새들의 노래 소리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줍니다.

또한 지심도에서 유명한 동백터널은 수백 년 동안 자란 크고 높은 동백나무가 우거져 있는 장관을 볼 수 있고 터널을 나오면 넓은 광장과 전망대에서 탁 트인 바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곳곳에 위치한 조형물도 추억을 남기기에 색다름을 느껴봅니다.

붉게 물든 동백꽃의 섬 지심도... 이름답지만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심도... 심신이 고단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휴양지로 추천해 봅니다. ☺



## 때까치

정옥식

조류학 박사, 환경생태연구원



들관을 지나온 산들바람도 어제와 달리 갓난아기 다루 듯하고, 꽁꽁 얼었던 대지도 절벽한 온화함을 품어낸다. 온화하고 평온한 이 판국에 산통 깨는 놈이 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 꼬리를 좌우로 흔들며 연신 “께! 께! 께꺄꺄꺄...” 요란한 소리를 쏘아 댄다. “께! 께! 께꺄꺄꺄...” 때까치다.

겨울철이라면 해질녘 적막한 들관을 걷는 나그네에겐 낯선 깨지감을 달래주는 정겨운 소리일 수 있다. 또한 얼어붙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세상 만물들에게 ‘항상 깨어있어라’라는 절은 일깨움을 주는 쓴 소리 같기도 하다. 이번만은 그렇지 않다.

산통 깨는 소리다. 여름철에만 찾아와 번식하는 노랑때까치와 칡때까치도, 겨울철에만 드물게 찾아오는 물때까치와 큰재개구마리 뿐 아니라 미조(毛鳥-길잃은 새)로 알려진 긴꼬리때까치도 마저 조용히 지낸다. 유독 요 때까치만 요란스럽다.

우리나라에는 때까치, 노랑때까치, 칡때까치, 물때까치, 큰재개구마리, 긴꼬리때까치 등 총 6종의 때까치과에 속하는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때까치의 경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전역에 분포하며 덧새로 생활한다.

몸길이는 20cm 정도이며 암수의 것 모양은 다르다. 수컷은 머리가 적갈색이고 몸의 윗면이 회색인 반면 암컷은 머리와 몸의 윗면 모두가 옅은 적갈색이다. 하지만 이 시끄러운 때까치도 번식기에는 조용하다. 등지의 위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4월쯤에 번식을 시작하며 나뭇줄기에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등지를 만들고 회백색 바탕에 적갈색의 얼룩이 있는 알을 5-6개 정도 낳는다. 청개구리나 장자뱀과 같은 작은 크기의 양서 파충류와 메뚜기, 잠자리 등의 곤충류를 주로 먹는다. 흥미로운 것은 때까치의 경우 잡은 먹이를 철조망이나 뾰족한 나뭇가지에 잡은 먹이를 꽂아두는 습성이 있다.

국내에 서식하는 때까치과에 속하는 조류 대부분은 *Lanius*라는 속명을 사용한다. *Lanius*는 라틴어로 도살자로는 뜻으로 때까치류의 먹이 습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때까치류는 육식성으로 배가 부르더라도 먹이감이 보이면 우선 잡아서 보관하는 습성을 지녔다. 간혹 때까치가 보이지 않더라도 꽂혀 있는 먹잇감을 보면 그 지역에 때까치가 서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옛날 외가댁 옆집의 꼬마가 기르던 때까치도 먹이를 주면 죽은 땅자나무의 가시나 TV안테나에 빠져나온 철사 끝에 꽂아 두곤 했었다. 그때까치의 이름을 '순이'로 기억하는 데 '순이'는 어릴 적 동지에서 멀어진 녀석을 주워 와서 기른 탓에 어미로부터 배운 것이 없었다. 따라서 때까치의 먹이 꽂는 습성은 학습보다는 본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내가 새를 공부하게 된 계기 중 하나로 '순이'도 한 몫을 했다. 처음 만난 '순이'는 외가댁 옆집 꼬마의 어깨 위에 앉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길들여져서 스스로 꼬마의 어깨 위에 앉았다고 보다는 아직 날개짓이 서툰 순이를 어깨에 앉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 꼬마는 늘 자랑심아 어깨위에 순이를 데리고 다녔고 나뿐만 아니라 동네아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한번이라도 순이를 내 어깨 위에 올려놓으려면 하루 종일 꼬마의 온갖 비위를 맞춰주어야 했고 나도 못먹는 어렵게 구한 과자를 그를 위해 개봉해야 했다.

겨우 허락을 받아내더라도 잠시 어깨에 앉히고선 얄밉게도 금방 데려 가곤 했다. 꼬마가 내 어깨의 순이를 떼어 낼 때 순이 발톱이 내 어깨의 옷감을 뜯으며 내는 '툭툭' 하는 소리와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다.

방학이 끝나 집으로 돌아올 때즈음 순이는 꼬마네 집주변을 경계로 오가며 생활할만큼 비행 실력이 높아졌고 먹이를 주면 받아먹거나 주변의 뾰족한 곳에 놓아두곤 했었다. 개학과 동시에 자연스레 순이

와의 이별이 이뤄졌고 순이를 보고픈 맘으로 인해 외가댁을 방문할 기회만 찾고 있었다.

다시 찾았을 때는 추석 즈음인 것으로 기억한다. 버스에서 내려 걸음이 마을에 들기 무섭게 꼬마네로 향했다. 꼬마도 순이도 없었다. 한참 후 동구 밖에서 만난 꼬마의 어깨엔 순이가 없었다.

행방을 묻자 모른다고 했다. 방학이 끝난 즈음 비행에 제법 익숙한 순이는 집 주변 어딘가에 머물며 주는 먹이를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을로 접어들수록 개구리나 메뚜기를 잡아오는 아이들도 점점 줄고 그만큼 순이에게 주는 먹이 횟수도 줄자 순이는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졌다고 한다.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졌다고 한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한 새와의 첫 만남은 그렇게 아쉽게 끝이 났다. 한동안 외가댁에 가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순이가 태어난 둑지가 있었던 감나무에 올라서 둑지 자리를 내려다보곤 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외갓집을 찾는 횟수가 품해졌다.

울 봄엔 커버린 그 감나무를 찾아 순이가 자란 둑지를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연구자로써 지녔던 초발심이 그곳에선 변치 않고 있을지도 봐야겠다. 1

# 상인들의 어리석음

옛날 어떤 상인들이 큰 바다를 항해하게 되었다. 바다를 항해하자면 반드시 길잡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길잡이 한 사람을 구하였다. 길잡이를 따라 바다로 나가는 도중에 넓은 들판에 이르렀다.

거기는 천신체<sup>天神體</sup>을 모시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을 죽여 천신에게 제사한 뒤에 라야 비로소 지나갈 수 있었다.

상인들은 서로 의논하였다.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다. 어떻게 죽이겠는가. 오직 저 길잡이가 제물에 적당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곧 길잡이를 죽여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친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서 모두 죽고 말았다.

모든 세상 사람도 그와 같다.

법의 바다에 들어가 그 보물을 얻으려면 좋은 법의 행을 길잡이로 삼아야 하는데, 도리어 선행을 부수고 생사의 넓은 길에서 나을 기약 없이, 세 가지 길[三惡道]을 돌아다니면서 한없는 고통을 받는다.

그것은 마치 저 장사꾼들이 큰 바다에 들어가려 하면서도 길잡이를 죽이고 나루터를 맑고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 죽는 것과 같다.▲



# 나라마다 다른 차문화 2부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 일본

일본도 차의 종류와 계절, 지역에 따라 차를 마시는 풍습이 다양하며 녹차가 대중화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말차, 옥로와 전차, 식당에서 주로 나오는 호우지차 등이 있으며 일반가정에서는 숙우가 아닌 다관에 차를 넣고 끓인 물을 넣어 비교적 간편하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도에서는 격식을 갖추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문인들이 모여 마시는(문인전법, 文人煎法) 자리에서는 다관에 찻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넣은 뒤 뚜껑을 닫고 뚜껑 위에 끓는 물을 계속 부어 차가 빨리 식지 않게

한 다음 찻잔에 바쳐 손님에게 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전통 다실이 작고 들어가는 문이 좁은 것은 옛날에 사무라이들도 칼을 벗어 놓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에서 '다도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가 대중화 되면서 차 산지인 시즈오카현이나 후쿠오카현에서는 차\*체험관과 박물관, 티 월드라는 곳이 있어 차에 대한 역사와 종류, 제조공정 등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마다 차 축제와 심포지엄을 열어 생활 속에서 차를 쉽게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녹차가 이처럼 대중화 된 것에는 자판기의 보급으로 젊은 층이 간편하게 캔이나 용기에 든 것을 사먹는 경우가 많아졌고 녹차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연구해 찻잎을 가루로 만들어 식용하는 방법(말차)을 널리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수입된 우롱차가 다이어트 음료로 알려지면서 녹차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 대만

대만에서는 20여 년 전에 중국으로 차가 유입되면서 이후 차의 재배와 육종에 관한 전문가들도 이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중 기후가 따뜻한 섬이기에 섬 전체에서 차를 재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종류의 차가 생산되고 있어 차의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대만의 차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들지만 대만을 대표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원산바오종차, 티엔관인 그리고 바이하오우롱차(우롱차)가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차밭이 대만 평란에 있습니다.

원산바오종차(조종차)는 가늘고 긴 잎 모양의 차로 단맛이 강하며 꽃향기가 나는데 특이하게도 찻잎의 종류나 발효방식이 아닌 포장 방식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철관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붙은 티엔관인은 난초의 향이 난다고 하며 찻잎이 쇠처럼 묵직하게 생겨 마치 관음보살의 얼굴처럼 이름 담다하여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바이하오우롱차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동양의 차 중에서 유품이라고 하여 동방미인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하오우롱차는 대만에서만 생산되고 차소녹엽선이라는 별례가 먹은 찻잎만 따서 사용하며 벌꿀과 같은 향이 난다고 합니다.

대만은 차에 대한 높은 자부심으로 정부와 차 생산업자들이 대만의 차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티백차와 캔차의 소비가 늘면서 차 쉐이크 음료나 차를 요리에 접목시킨 음식들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미얀마

미얀마는 고산지대에서 좋은 녹차와 홍차를 생산하고 영국 식민지 시기의 영향인지 티문화가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카페나 다리를 갖춰 티타임을 가지기 보다는 그냥 일반 식당이나 길거리식당에서 식사류나 간식들과 같이 나오거나 주문해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러펫*Laphet*<sup>翡翠</sup>이라는 전통적인 발효 제조 과정을 거친 절인 찻잎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미얀마의 차는 찻물, 연유를 탄 밀크티인 러펫예*Laphet yay*가 대표적이고 아침대용으로도 러펫예를 꼭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큰 점시에 절인 찻잎, 견과류, 마늘, 참깨, 생강, 땅콩, 오일, 라임 등을 섞은 차 셀러드의 형태로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 베트남

베트남도 차 역사가 깊으며 차가 많이 생산되는 곳은 다랏지방과 같은 고산지역입니다. 생활 속에서 항상 차를 즐기며 베트남 가정에서는 항상 따뜻한 차를 준비해 두고 손님이 오면 차를 내는 것이 관습이라고 합니다. 손님으로 갔을 때는 찻잔이 작더라도 차를 한 번에 마시지 말고 향과 맛을 즐기며 천천히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남부지역에서는 얼음차를 짜다*ta da*라고 하며 북부지방에서는 제다*che da*라고 하며 베트남에서는 물보다 더 대중적인 음료로 인식되어 음식 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죽음이 없는 집의 씨앗

법일 정사  
수인사 주교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던 외아들을 그만 잊고 말았다. 외아들이 죽어 비통한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부처님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아. 마을로 가서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의 씨앗을 한줌 얻어오너라.”

여인은 쑨살같이 마을로 달려가 온 마을을 뒤졌다. 그러나 집집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다.

“씨앗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원 그런 집이 어디 있단 말이요. 우리 집만 해도 벌써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집 하나 사람이 안 죽은 집은 없었다. 하지만 여인은 결코 단념 할 수 없었다. 여인은 온종일 마을을 뒤지며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런 집이 있을리 없었다.

날은 어두워졌고, 그녀는 지칠대로 지쳐 버리고 말았다.

구리 세공인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싶다면, 그의 마룻바닥에 쌓여 있는 구리 가루를 헤아려 보라.

그래 헤아려 보라.

신 같은 것, 영혼 같은 것, 부활 같은 것, 영생 같은 것,  
천국과 지옥 같은 것, 이런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헤아려 보라.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 삶의 부스러기들을 헤아려 보라.

끝까지 열심히 살자. 허드렛일이라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자. ■



## 연극 '뷰티풀 라이프'를 보고

여순애  
자식사교도

2019년 10월 3일 춘천행 고속버스를 탔다. 조카가 춘천 근처에서 군복무를 하는데 춘천으로 외출을 나와서 가족이 모두 모이기로 했다.

즐거운 춘천에서의 시간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3학년인 어린 조카와 함께 '뷰티풀 라이프'란 연극을 본 것이다. 50대인 이모, 고모인 내가 10살인 조카와 보는 연극은 너무나 뜻깊었다. 같이 공감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가족이 10명을 넘어서 단체관람의 혜택도 받았다. 강원대학교 앞 50명 수용이 가능한 소극장에서 연극은 시작된다. 전국에서 시작된다는데 난 춘천에서 관람하게 되었다.

내용은 평범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며 벌어지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일상적인 이야기를 잔잔하고 따뜻하며 재미나게 풀어낸 작품이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애하다 서로의 노력 끝에 결혼에 성공한다. 이 장면에서는 너무나 많이 웃었다.

결혼의 힘든 삶 속에서 아내는 앞을 못 보게 된다. 이때 리얼리틱한 아내의 연기에 관객들은 눈물바다가 되어 버렸다. 남자들도 운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두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늙어 어느덧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에 이른다. 하지만 홀로 남겨져야 할 할머니를 위해 작은 준비를 한다. 할아버지는 저 세상으로 떠나고 할머니는 홀로 할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즐거리는 단순하지만 내용속의 모습은 우리들의 이야기다. 자식이 부모에게 행하는 행동이라든가,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할아버지의 사랑 표현법 그래서일까 모두들 공감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연극의 내용 흐름이 참 자연스러웠다.

우리 가족 모두는 나와서 서로가 정말 좋은 연극을 보았다고 즐거워 했다. 군인 아저씨인 조카도 최고의 재미난 시간이었다 한다.



작년에 상영된 연극이라 제방영 되어야 볼 수 있지만 기회가 되면 꼭 보려 갔으면 한다. 8세부터 어르신까지 관람 할 수 있고 많이 웃고, 많이 울고, 그리고 노부부의 삶에 많이 공감할 수 있다!

# 붓다의 무릎에 앉아

이선희  
통리원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명상을 강조하시는 정사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책이다. 우리나라 법정 스님 같은, 미안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스님의 책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저자인 우 조티카<sup>Sayadaw U Tejika</sup> 스님은 가톨릭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 한 후,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출가한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님이었다.

<붓다의 무릎에 앉아>는 ‘사띠 안에 머물기’, ‘가장 행복한 사람’, ‘생사와 함께 춤을’, ‘인생은 학교다’의 범문 네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위빠사나를 수행하는 스님의 명상 에세이이다. 위빠사나를 모르는 내가 접해도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불교를 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원리를 하나하나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으로 유명한 위빠사나. 붓다가 보여준 길을 스스로 걷는 것을 강조하는 이 수행법은 어느 누구에게 의존하기보다 ‘깨어있는 삶’, ‘자신의 내면으로부터의 스스로 배움’을 강조한다. 화려한 장식을 버리고 담백하게 글을 써내려가면서 실생활의 수행이 진짜 수행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 점진적인 깨달음의 길로 향하는 마음챙김<sup>sati</sup>의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우 조티카 스님은 “마음챙김<sup>sati</sup>은 마음의 거처이다. 마음챙김이 결여된 마음은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과 같다. 그에게는 아무런 안정도, 평화도, 안전도, 영에도 없다.”라고 하면서 마음챙김인 사띠<sup>sati</sup>를 강조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이 책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자기를 바로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어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것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다. 아기에게 잘 자라고 자장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날이 밝았으니 이제는 일어나라는 노래도 불러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책을 항상 곁에 두라고 한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한두 줄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라고 강조한다. 몸에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담마(법, 다르마)에 관한 글 읽으면 마음에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과 같다느 뜻이다.

오늘 하루, 마음의 양식인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장 좋은 책을 먼저 읽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읽을 기회를 평생 잃게 될지도 모른다. 이 문구의 깊은 의미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이다.(40쪽)

바른 태도로 규칙적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발전이 이루어진다. 정직함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꾸밈은 진실하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다면 이를 수 없다. 나는 정직함을 나의 신통력으로 삼는다. 나의 신통력은 정직함이다.(50쪽)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즐거운 사람에게는 사방에 즐거운 것들이 넘쳐난다. 만물의 가치를 알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정신적 태도는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든다.

고귀한 마음가짐은 그런 것들 속에 굳게 자리 잡는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의도를 유지해야한다. 성취하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소유보다 귀중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보다 소유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불행을 느낀다. 이해가 없는 사람은 소유하더라도 불행해진다. 행복한 기분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위의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시간을 황금 같이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면 남은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할것인가!(142~144쪽)

우리는 배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을 인생이라는 크고 넓은 대학의 학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인생 대학의 학생.’ 교과 과정은 살고 있는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관계입니다.

그것이 수업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접속하는 모든 관계가 공부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마지막까지 전 생에 걸친 모든 경험은 배워야 할 귀중한 수업입니다. 당신이 있는 어디든 그곳이 교육의 장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193쪽)▲



## 어밀 語密

김제동  
법장원 연구원



어밀<sup>晦</sup>, 즉 구밀<sup>晦</sup>은 말로 나타내는 소리를 통해 부처가 나에게로 들어오고 내가 부처에게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이른바 만트라이다. 이것 은 진언이라고 말해지는 것으로서 밀교의 행자는 이 진언을 중시한다.

보통 우리들이 진언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라니와 주<sup>諸</sup>와 진언의 세 가지 성격이 복합된 것이다. 원래 주술적인 작법에 사용되는 주문과, 진언 및 다라니는 각각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다.

현재는 이 모두를 같이 진언으로 쓰고 있으며, 길이에 따라 긴 것은 다라니, 짧은 것은 진언, 더욱 짧은 것은 주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그 가운데에서 진언은 산스크리트어로 만트라라고 일컬어지며, 어원적으로는 사념한다는 뜻의 만과 그릇의 뜻을 지닌 트라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의해 신의 덕을 사념할 수 있다든가 사념을 표현하기 위한 그릇, 즉 다시 말해 문자 또는 언어를 의미하고 있다.

주<sup>諸</sup>는 비드야<sup>विद्या</sup>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역어이지만 이 말은 명<sup>명</sup>이란 말로도 번역되듯이 과학이라든가 학문의 뜻을 지니고 있다. 즉 불교의 교리를 다룬 내명<sup>內明</sup>, 논리학인 인명<sup>因明</sup>, 문법학을 말하는 성명<sup>聲明</sup>.

등처럼 학문을 의미하며, 대승불교에서는 불타의 지혜를 명<sup>明</sup>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문이요 불타의 지혜인 주<sup>諸</sup>는 진실한 깊이에 악마의 힘을 정복하는 힘을 지니고 재앙을 물리친다고 생각되어진 것이다.

다라니<sup>陀羅尼</sup>는 인도의 요가수법의 하나였던 집지<sup>集持</sup>에 기원이 있다. 그것은 정신을 통일하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불교에서도 정신의 동요를 총지<sup>總持</sup>하고 삼매에 드는 수단으로서 다라니를 채용한 것이다.

즉 다라니는 경전의 내용을 빠르게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전 내용의 응결형이다. 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로부터 나온 것으로, 문자라든가 의미라든가 문장이라든가 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진언, 다라니를 하나의 의미로 사용하지만 본래는 이상의 3가지의 의미로부터 온 것이다.▲



# 허공

## 虛空

虛 - 허

空 - 공

### ① 텅 빈 공중

- ② 다른 것을 막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것에 의하여 막히지도 아니하며, 사물과 마음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공간.
- ③ 아무것도 없는 세계 모양도 빛도, 아무런 사랑(思量)도 없는 무위(無爲), 무루(無漏)의 세계이다.

우리 눈으로 보는 현상세계는 크다느니, 작다느니, 머문다느니, 움직이느니... 등 갖가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체에 있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항상 공<sup>空</sup>이며 마치 허공과 같아 어디를 잡아도 똑같이 잡히지 않듯이 오직 하나의 실체가 있을 뿐이 지들 이상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허<sup>呵</sup>와 공<sup>空</sup>이 모두 무<sup>無</sup>와 같다라는 뜻이다. 즉 무의 다른 표현이다. 허하여 형태나 성질이 없으며, 공하여 장애가 없기에 허공이라고 한다.



“마땅히 알라. 허공은 그대의 마음 안에서 나며...” (능엄경)

“내지 허공은 모두 망상<sup>妄想</sup>으로 인해 생겨나느니...” (능엄경)

불교에는 허공이 불은 낱말이 많다. 예를 들면, 허공무변<sup>虛空無邊</sup>, 허공계<sup>虛空界</sup>, 허공화<sup>虛空華</sup>, 허공안<sup>虛空眼</sup>, 허공장보살 등으로 많다. 허공화<sup>虛空華</sup>는 눈병을 앓는 사람이 공중에 꽃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눈병 때문에 보이는 환상이다. 이것을 ‘허공화’라고 한다.

이 세상의 사물에는 실체가 없는데 인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치 실체라고 착각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 허공화를 비유하여 가르쳐 주셨다.

“세간의 생멸은 마치 허공화와 같다.” (능엄경) ।



##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지난 호 독자 솜씨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 울산 이유정



▲ 포항 강선아



▲ 포항 강선우



▲ 포항 김지미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 키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종지종 종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삼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신년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홀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혜발절(우관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종조별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고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 아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등 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흡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불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종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b>서울, 경기교구</b>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승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번길 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봉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티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경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일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화운로131번길5 (내녁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떠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미평4길 266-78	(043)833-0399

###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미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조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현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삼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불교총지종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범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종

###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우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민준
김봉래	김성민	김승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종호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체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정화연	주건우
지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경림	한미영	한명희	허지웅

-불교총지종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네드립니다.

발행일 총기 49(2020)년 4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처 불교총지종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3  
팩스 02-552-1082



최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참 이상한 나라'라는 제목의 동영상이다. 장엄한 음악을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맞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미담과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마스크를 못 사는 이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손수 바느질해 만든 마스크 20여 개를 기부한 83세 할머니, 자발적으로 기부 행렬에 동참하는 국민들, 코로나19가 번진 현장의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우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의사·간호사 등의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다.

"이 이상한 나라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이 늘 이렇습니다. 어느 날 물을 바이러스가 사람들 사이로 퍼져 나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된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울 때면 공동체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던 이 나라 사람들은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나라가 굳이 감염자를 밝히지 않으려고 할 때도 이 이상한 나라는 묵묵히 검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감염자 수가 늘어가며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이상한 나라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체를 마련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과 리더십은 위기에 맞서는 민주사회 핵심이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한다.



마음을 잘 절제하고 게으름 없이  
노력하며 주의 깊은 마음 관찰  
수행을 통해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는  
지혜로운 이는 홍수로도 휩쓸리지 않는  
섬을 쌓은 것과 같다.

- 법구경 -